

인권정보자료실  
CPh1.67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료전



[www.peacemuseum.or.kr](http://www.peacemuseum.or.kr)

CPh1.67

평화의 세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21세기에도 전쟁과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1156명의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은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2005년 5월 26일(목)~6월 4일(토)

오프닝 5월 26일(목) 오후 5시

대안공간 art space 休 [hue]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4-1 Tel:02-333-0955  
<http://www.artspacehue.com>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이해동

스페인에서는 프랑코 정권 하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구금되어 있던 옛 성을  
평화박물관으로 꾸미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단다하고  
옛 이야기처럼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한국에서는 1000여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전국 각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단지 총을 들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은 사람은 1만명이 넘습시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가 양심과 평화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기 시작한 것은 채 5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비록 얼마되지 않았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60년이 넘습시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행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독립운동사에 서술되지만,

대한민국에서 행한 똑같은 행동은  
반국가적인 범죄로 처벌받아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북대치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정작 한국전쟁 중에  
남과 북 어느 쪽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금처럼 가혹하게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모은 자료들은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고난 받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할아버지는 일제의 감옥에 갔고, 아버지는 군사독재의 감옥에 갔는데,  
민주화되었다는 우리 사회에서 아들마저  
또다시 감옥에 가야하는 가슴 아픈 역사를 모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하지만, 3대가 감옥에 가는데 아직도 시기상조일까요?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 위기에 빠졌을 때  
총을 들고 나라를 구하는 것 역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가 총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을  
꼭 감옥에 보내고 기어이 처벌하는 그런 나라여야 할까요?

이 전시회를 준비하느라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수고하신 분들은 이 생생한 자료를  
몸으로 만들어 낸 병역거부자들입니다.  
그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초대하는 글	6
Intro	13
최초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일제징병제	19
한 가족에게 지워진 28년, 고난의 세월 - 옥지준 가족사건	25
'대포대죄' 라고 들어보셨나요? - 장순옥 사건	31
남에서도 북에서도 총을 들지 않았다 - 한국전쟁 시기의 병역 거부	37
온 나라를 군대처럼 - 병영국가화	43
'항명' 으로 죄명만 바뀌었을 뿐 - 항명으로 병역거부 시작	49
수의 · 수갑 · 수기 ... 그리고 수감의 기억들	55
출소하던 날, 어머니 손도 못 잡아보고 다시 교도소로 - 반복처벌	61
죽어도 총을 안 잡은 젊은이들 - 병역거부자 사망사건	67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결성 - 병역거부 사회이슈로 등장	73
새로운 병역거부자들의 등장 - 반전평화주의 병역거부자들	81
708호 이등병의 편지 - 이등병 강철민, 파병반대 병역거부	87
뜨거운 여론은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고- 언론보도와 여론의 흐름	93
60년, 세월의 무게 - 병역거부 연대기	101
양심과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하여 - 세계적인 현황	107



## 충을들지않는사람들

한국에서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 최초로 처벌기록이 보고 된 이래 지금까지 1만 여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받아왔다.

2001년 이후, 이 문제가 사회적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어왔고 현재 10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전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국회에서는 현재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병역거부가 특정종교인의 문제만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에 던지는 평화의 메시지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 자료전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준비되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병역거부에 대해서 감춰진,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는 지독했던 역사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병역거부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병역거부자와 같은 다양한 소수자들이 그 존재자체로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 전시회가 일조하기를 바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료전

Intro

## 충을들지않는사람들

한국에서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 최초로 처벌기록이 보고 된 이래 지금까지 1만 여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받아왔다.

2001년 이후, 이 문제가 사회적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어왔고, 2004년, 현행 병역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합치 결정이후 병역거부 수감자 수는 꾸준히 늘어 현재 1000여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전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이 수치는 세계최고 수준이라 보고 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현재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병역거부가 특정종교인의 문제만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에 던지는 평화의 메시지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들의 신념과 실천에 답을 해줘야 할 때이다.

이 자료전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준비되었다.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병역거부에 대해서 감춰진,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는, 독했던 역사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병역거부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바라봐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한 해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병역거부자와 같은 다양한 소수자들이 그 존재자체로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 전시회가 일조하기를 바란다.



일제는 1938년 2월 22일 '육군 특별 지원병령'을 발표하여 조선인이 일본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일제는 1944년에 실시한 징병제를 통하여 병력자원의 부족을 메우는 한편 조선 청년들을 '황군'에 복무케 함으로써 황국의식을 주입하려 하였다.

1939년 6월에는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38명을 체포하였다.



최초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일제징병제

일제는 1938년 2월 22일 '육군 특별 지원병령'을 발표하여 조선인이 일본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전반적인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병력자원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자

일제는 1942년 5월 8일 각의의 결정을 통해

1944년부터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제가 지원병제도를 도입한 것은

병력자원의 부족을 메우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조선청년들을 '황군'에 복무케 함으로써 황국의식을 주입하려는 것이

주된 의도였다. 그 가운데 특히 1939년 6월 일제가

조선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 38명을 체포함으로써

병역거부자가 최초로 생기게 되었다.



출전하는 학도병



신체검사를 받는  
징병대상자



일제의 징병 홍보 사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44년부터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징병을 홍보하는 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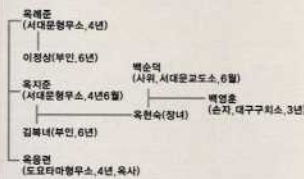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사상회보》에는  
**등대사**(여호와의 증인)  
사건이 실려있다.

경성지역에서 총 31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검거되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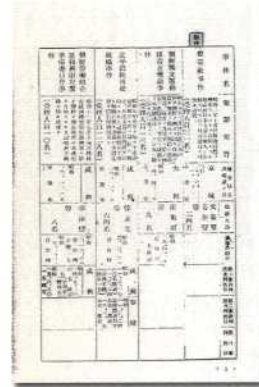
수감된 사람들 중에  
**옥지준 일가**가 있다.

옥지준 부부는 큰형 부부와  
옥사하게 된 동생까지  
모두 옥고를 치른 것에 더해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사위와 손자를  
감옥에 보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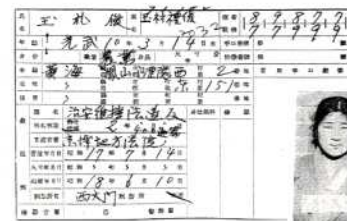
당시의 병역거부 사건은  
현재 독립운동의  
한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가족에게 지워진 28년, 고난의 세월  
- 옥지준 가족사건



조선 총독부 고등법원 검찰국 사상부가  
발행한 사상회보 제 24호에 실린  
등대사 사건 관련 내용.

조선중대사상사건 경과표에  
등대사 사건을 게재하여 체포자 명단,  
범죄 사실 및 심문 조서 등을 실었다.



치안유지법위반 및 불경죄로  
구속 수감된 옥지준 일가의  
신상기록카드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2집

문화투쟁사자료집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12집  
문화투쟁사 자료집에 게재된  
예심종결결정문 번역본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그 자손들은 동일한 이유로  
계속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리하여 옥지준 일가의  
총 투옥기간은 28년이나 된다.

일제치하 당시 치안유지법위반 및 불경죄로 구속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 중에 **옥지준 일가**가 있다. 옥지준 일가는  
1939년 병역거부로 촉발된 **등대사**에 대한 일제 검거 당시 투옥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그 자손들은 동일한 이유로  
계속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리하여 옥지준 일가의  
총 투옥기간은 28년이나 된다.

조선 총독부 고등법원 검찰국 사상부에서 발행한 사상회보에는  
등대사 사건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성지역에서 총 31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검거되었음을 알려준다. 이 등대사 사건은  
독립운동의 한 부분으로 평가되어 이 사건의 예심종결결정문이  
독립운동사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일제시대에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은 총 38명이었는데,  
36명은 한국에서 2명은 일본에서 투옥되었다.  
그 중 5명은 옥사했다.



임신 3개월의 몸으로  
수감되었던 장순옥은  
갖은 악형과  
열악한 수감 환경으로 인해  
유산 하였습니다.

여성 수감자들에게는  
흔히 수감형벌이 행해졌다.  
그 중 '대포대죄'는  
양손을 위아래로 넘겨  
등 뒤로 묶는  
고문이었다.



'대포대죄'라고 들어보셨나요? - 장순옥 사건

보통 하나의 독방에 두 명씩 두었는데,  
손을 뒤로 한 채 팔짱을 끼게 해서  
수갑을 채웠다.



일제치하 당시의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 중에는 여성들도 있었다.  
그 중 장순옥은 당시 임신 3개월의 몸으로 투옥되어  
열악한 수감환경에서 당한 갖은 악형으로 인해 끝내는 유산하고 말았다.  
장순옥은 그 당시 수감된 수형자들 중 유일한 생존자이지만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중이다.

장순옥 이외에도 수감되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수많은 악형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 중에서도 '대포대죄'라 불리는 고문은  
한 시간을 버티어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수형자들은 이 고문을 7개월간이나 반복적으로 견뎌냈다.  
또한 수형자들은 투옥기간 중 난방시설도 없는 독방에서  
속옷 위에 걸치는 간단한 죄수복만 입고 혹독한 겨울을 지내야만 하였다.



'대포대죄'라고 불린 고문을 재현화한 것.  
장순옥의 진술에 의하면,  
죄수들의 한 손은 뒤로 나머지 한 손은 어깨너머로 넘겨서  
등 뒤에서 함께 묶어 수갑으로 채우는  
극악한 고문이었다고 한다.



그림과 같이 심지어 잘 때에도  
수갑을 풀지 못한 채  
7개월을 보내야 하였다.



심지어 한국전쟁 중에도  
병역거부자들은 있었다.

**노병일**은  
인민군에게 붙잡혀  
총살위협까지 받았으나  
끝까지 군복무를  
거부하였다.



한편 국군에 의해  
징집된 **박종일**은  
병역을 거부하여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남에서도 북에서도 총을 들지 않았다.  
- 한국전쟁 시기의 병역 거부



박종일 사건 판결문  
1953년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징집된 **박종일**은  
병역을 거부하여  
3년 형을 선고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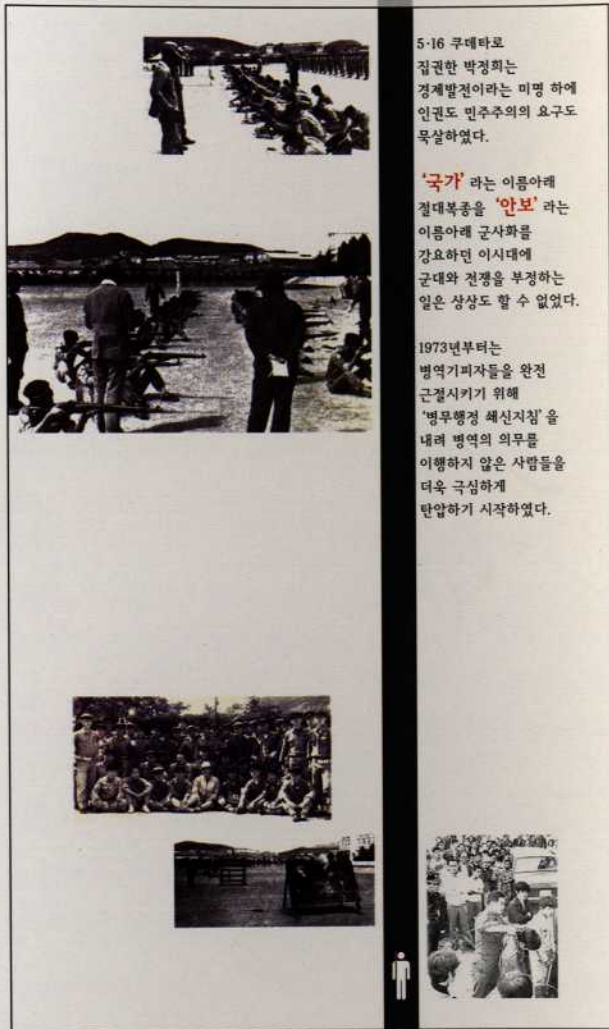
박종일 사진

병역거부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 양쪽 모두에서 병역을 거부하였다.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하여 남북한 군인들에 의해 붙잡혀  
군복무를 강요당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노병일**이 1950년 한국 전쟁 중 인민군에 붙잡혀  
총살 위협을 받는 장면.  
다행히도 군인들은 자신의 신념을 피력한 노병일에게  
공포 사격을 가해 기절만 시켰을 뿐 목숨은 살려 주었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도 민주주의의 요구도  
묵살하였다.

'국가'라는 이름아래  
절대복종을 '안보'라는  
이름아래 군사화를  
강요하던 이시대에  
군대와 전쟁을 부정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1973년부터는  
병역기피자들을 완전  
근절시키기 위해  
'병무행정 쇄신지침'을  
내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더욱 극심하게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온 나라를 군대처럼 - 병영국가화

1961년 5.16 쿠데타로 군복에서 양복으로 갈아입은  
박정희의 1인 독재 시대가 시작된다.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부의 노력은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도 민주주의도 없는  
탄압으로 일관되어졌다.

'국가'라는 이름 아래 절대복종을,  
'안보'라는 이름 아래 군사화를 강요하던 이 시대에  
군대와 전쟁을 부정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학생들은 군사훈련을 받았고, 장발단속으로 길거리에서 머리카락을  
잘리는 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징병제 하에서 병역기피자도 병역거부자도  
항상 존재해 왔다. 물론 국가의 입장에서선 모두 병역기피자일 뿐이었다.  
병역기피자들을 완전 근절시키기 위해  
1973년부터 '병무행정 쇄신지침'을 내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다.



길거리에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손에  
머리카락을 잘리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불과 30여 년 전  
한국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학교 교련시간에 군사훈련을 받는 모습들.  
학생인지 군인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다.





**강제입영**이 시작되면서  
여호와의 증인들도  
군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질문을 거부하는 것만이  
그들의 병역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 시기 각 지역 병무청은  
입영을 독려하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 대표들과  
연세 간담회를 열기도 하였다.

**兵役완수 다짐**  
거부하던「여호와의 증인」  
1974. 10. 26



'항명'으로 죄명만 바뀌었을 뿐  
- 항명으로 병역거부 시작



병무청 보고서

**요약사실**  
병역거부를 할당된 기간이나 은닉하는 여호와의 증인들과  
적부에 따라서는 병역법 제 22조 2항에 의해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징금 1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요약사실**  
1) 신도들 병역의무자 (남자 18~40세, 병단 24~104)만 국외  
출국요청

2) 신도들 병역의무자로 같은 연령의 관련 병역서를 받은 것은  
기존의 기록에 의거하여 동등하게 처리된 것임

3) 신도들의 병역의무 의무를 사감하기 위하여  
다른 종교적 유산과 병역의무 이행거부는 국외출국 요건  
충족한 병역의무자가 병을 선택함

4) 신도들 병역의무 불이행한 거부자에 대하여는 여호와의  
증인신도회로서 계명교회 (반사회관) 병역거부  
통하는 편지를 보냄

**兵役완수 다짐**  
거부하던「여호와의 증인」  
1974. 10. 26

1974년 10월 26일 국제신문에 게재된 기사.  
병무청이 여호와의 증인 대표자들을 면담해서 신도들에게  
군 입대를 종용하도록 요구한 내용이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은 군 입대 100%를 달성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강제입영**시킴에 따라 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들도 강제로 끌려가서  
군대 안에서 집총거부를 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처벌의 근거가 병역법 위반이었으나,  
이 시기부터 항명으로 바뀌었다.

각 지역 병무청은  
여호와의 증인 대표들과의 연세 간담회를 열어  
대표들에게 신도들의 입영독려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들과 간담회 결과들을 종합하여  
여호와의 증인들이 입영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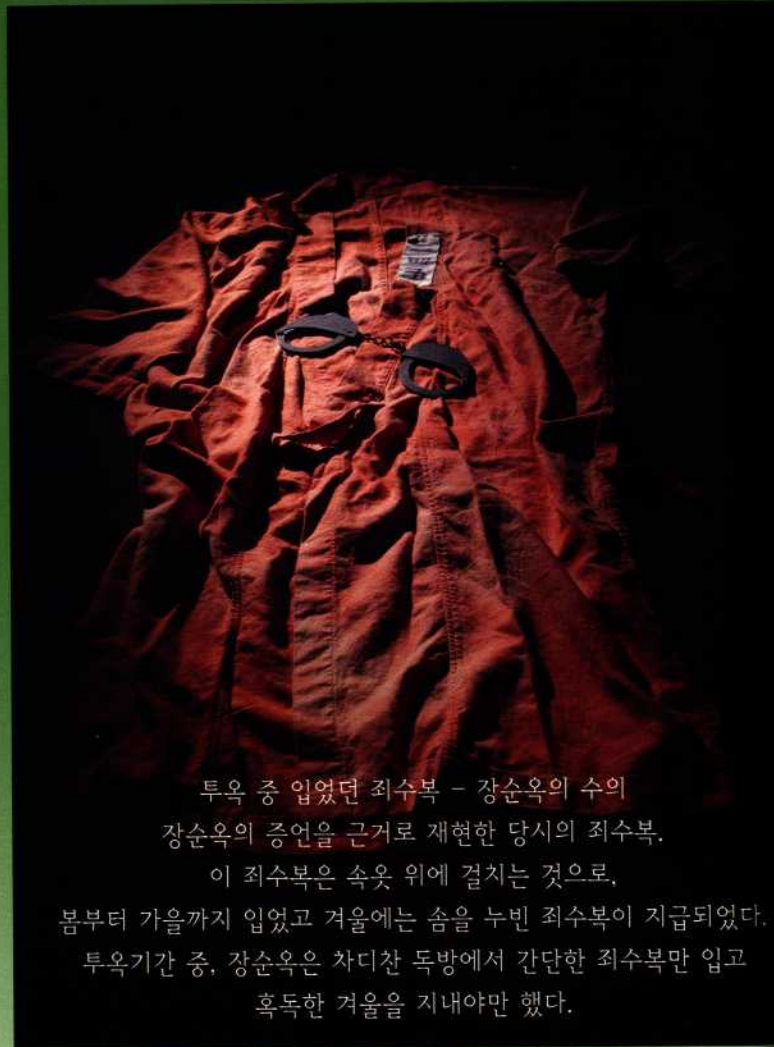
1975년 3월 12일자 부산일보를 보면,  
병무청 직원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집회장소를 급습해서  
55명의 여호와의 증인을 강제연행 입영 조치한 기사가 실려 있다.





수의  
·  
수감  
·  
수기  
:  
그리고 수감의 기억들

실물전시대



투옥 중 입었던 죄수복 - 장순옥의 수의  
장순옥의 증언을 근거로 재현한 당시의 죄수복.

이 죄수복은 속옷 위에 걸치는 것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입고 겨울에는 솜을 누빈 죄수복이 지급되었다.  
투옥기간 중, 장순옥은 차디찬 독방에서 간단한 죄수복만 입고  
혹독한 겨울을 지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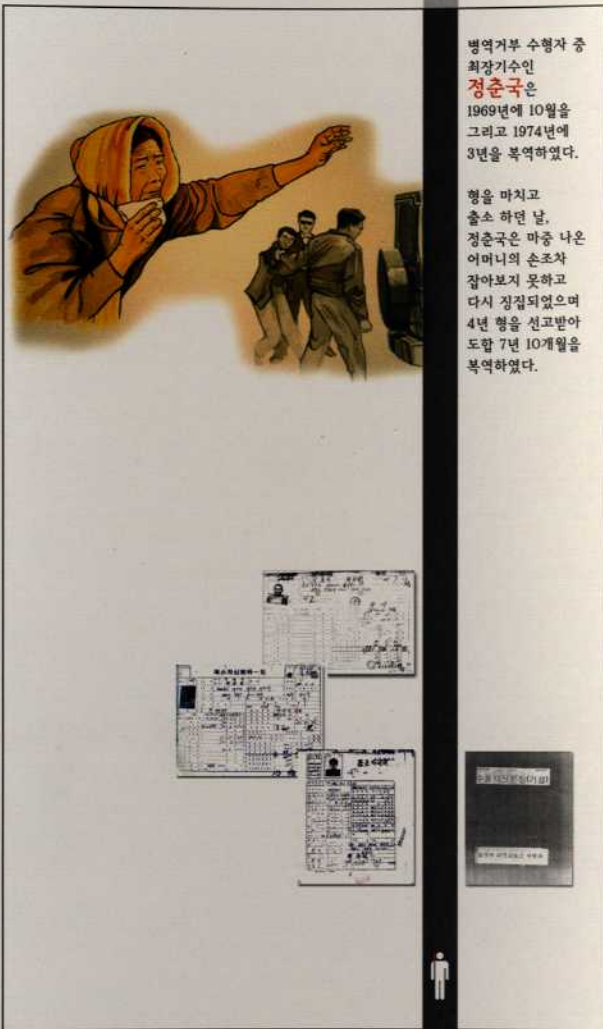


나는 이렇게 옥살이를 하였다 - 박화춘 수기  
이 수기를 작성한 박화춘(55세, 제주도)은 1975년 병역거부로  
2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그는 그 기간 중  
군사훈련을 다시 거부하여 1년형을 더 선고받아  
총 3년을 복역하고 1978년 출소하였다.  
이 글은 김해교도소에 오기까지 그가 거쳤던  
훈련소-헌병대-구치소-육군교도소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으로, 당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이 겪었던  
갖가지 형태의 불법적인 처우를 낱낱이 밝히고 있다.



양심을 지키기 위해 받았던 처벌 - 병역거부자 7000명 조사 기록  
2001년 12월에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총 6942명이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2번 이상 투옥된 사람이 138명에 달하고  
4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도 150명이나 되었다.  
여기 전시된 기록에 의하면 응답자들이  
복역한 총 수감기간은 15,675년이다.





병역거부 수형자 중  
최장기수인  
**정춘국**은  
1969년에 10월을  
그리고 1974년에  
3년을 복역하였다.

형을 마치고  
출소 하던 날,  
정춘국은 마중 나온  
어머니의 손조차  
잡아보지 못하고  
다시 징집되었으며  
4년 형을 선고받아  
도합 7년 10개월을  
복역하였다.

출소하던 날, 어머니 손도 못 잡아보고 다시 교도소로  
- 반복처벌

1974년부터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여러 형태의 반복처벌이 상당기간 자행되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병역거부자를  
교도소 앞에서 바로 연행하여 영장도 없이  
다시 군 부대로 강제 입영하게 하는 일,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에게 군 교도소 내에서 재차 군사 훈련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에게 다시 실형을 추가로 선고하는 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다시 병역을 거부하여 재판을 받게 될 때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복역 기간을 늘리는 일,  
이미 집총을 거부한 자에게 다음 날 재차 집총을 명하고  
이를 다시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에게는 경합범이라 하여  
1.5배의 형량을 선고하는 일 등이 그 예이다.

수형자 중 최장기 수감자인 **정춘국**은  
총 3차례에 걸쳐 7년 10개월을 복역하였다.  
충남대 의예과 재학 중이던 정춘국은  
1969년 병역거부로 10개월을 복역한 후,  
1974년 병무비리 일소시기에 다시 징집되었다.  
1년 6월을 선고받은 정춘국은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항소하였으나  
오히려 3년으로 형이 늘었다. 형을 마치고 출소하던 날,  
정춘국은 마중 나온 어머니의 손조차 잡아보지 못하고  
다시 불법 연행되어 헌병대에 넘겨졌다.  
당시 군형법상 최고형이 2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춘국은 동일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춘국의 수형자 신분장


정춘국이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서 다시 연행되는 정춘국과  
그 모습을 눈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의 어머니









**김종식**은  
논산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하였고  
현병의 무자비한 구타로  
사망하였다.



**이춘길**은  
사단 영창에서  
현병에게 각목구타를 당해  
비장파열로 사망하였다.

이춘길의 유족이  
군으로부터 받은  
위로금이라고는  
부대장이 보내온  
일반원의 조의금이  
전부였다.

죽어도 총을 안 잡은 젊은이들  
- 병역거부자 사망사건

李 春 吉 君 之 遺 書  
春 君 之 遺 書 係 於 1970 年 11 月 11 日 於 論 山 訓 練 所 內 寫 下 之 遺 書 其 內 有 春 君 之 自 述 及 對 於 國 家 之 忠 誠 心 意 等 情 茲 將 其 遺 書 之 大 意 抄 錄 如 下 以 示 大 眾 之 目 擊 云 云

김종식의 유가족이 훈련소장과  
현병대장 앞으로 보낸  
사건 경위에 대한 질의서

구분	내역	비고
1. 사망원인	비장파열	
2. 사망원인	비장파열	
3. 사망원인	비장파열	
4. 사망원인	비장파열	
5. 사망원인	비장파열	
6. 사망원인	비장파열	
7. 사망원인	비장파열	
8. 사망원인	비장파열	
9. 사망원인	비장파열	
10. 사망원인	비장파열	
11. 사망원인	비장파열	
12. 사망원인	비장파열	

구분	내역	비고
1. 사망원인	비장파열	
2. 사망원인	비장파열	
3. 사망원인	비장파열	
4. 사망원인	비장파열	
5. 사망원인	비장파열	
6. 사망원인	비장파열	
7. 사망원인	비장파열	
8. 사망원인	비장파열	
9. 사망원인	비장파열	
10. 사망원인	비장파열	
11. 사망원인	비장파열	
12. 사망원인	비장파열	

이춘길의 사망진단서

이춘길 구타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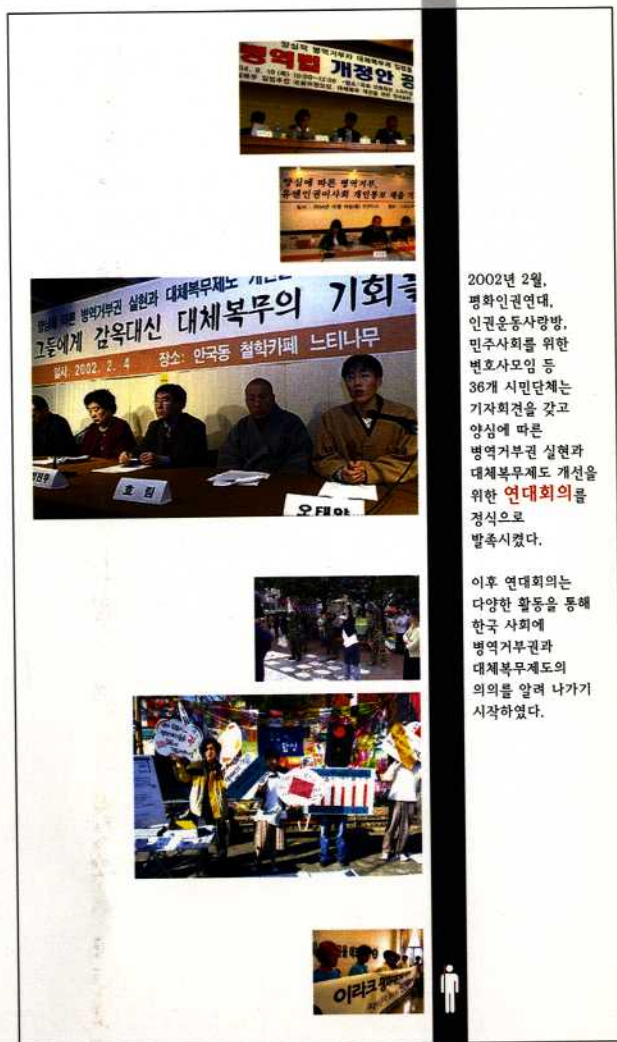
김종식은 논산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하였고  
현병의 구타로 사망하였다.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당시 군의 부연대장은  
“비록 김종식은 죽었지만 그 신앙심으로 오히려 이겼다.  
우리가 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책임을 시인하였다.



이춘길은 사단 영창에서 현병의 각목구타로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비장파열로 사망하였다.  
이춘길의 유족은 당시의 억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군에 책임을 묻지도 못하였고,  
군으로부터 받은 위로금이라고는  
부대장이 보내온 일 만원의 조의금이 전부였다.





2002년 2월,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6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를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이후 연대회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의 의의를 알려 나가기 시작하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결성  
- 병역거부 사회이슈로 등장

2001년 병역거부 문제가 일반 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평화·인권단체들의 대응도 신속히 진행되었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6개 시민단체는 2002년 2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를 정식으로 발족했다. 이후 연대회의는 법률지원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병역거부자 및 병역거부를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상담활동,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의 의의를 알리기 위한 각종 간담회, 토론회, 기고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평화재건이란 명목으로 한국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되면서 병역거부자들은 단식, 농성 등의 각종 시위와 현역 군인 강철민 이병의 병역거부 등을 통해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많은 활동을 벌였다. 평화주의 병역거부자들은 진정한 평화재건을 원한다면 파병부대를 철수하고 민간평화봉사단을 파견해야 하며 자신들이 기꺼이 그 대열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대만 현지조사 등의 연구 활동을 통해 대체복무제도가 한국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제도임을 알려내고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 해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3월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주최로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2001년 3월 17, 18일

경기도 파주에서

개최되었던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숍.

병역거부를 비롯한

군 문제 전반을 어떻게

시민사회의 의제로

가져갈 지 논의하였고

이후 연대회의가

발족하였다.



다양한 캠페인들  
감옥밖에 길이 없는  
병역거부자들의  
상황을 알리고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국민체조를  
통해 상징화한  
한국사회의  
군사주의  
퍼포먼스



유엔관련 활동들  
유엔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형벌적이 아닌 대체복무제 도입을 각 국가에게 권고하였다. 한국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이사국으로써 위의 결의안에 동참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권고를 이행하지는 않고 있다. 연대회의는 2002년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매년 관련 리포트와 서면, 구두진술을 해오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유엔인권이사회 개인통보제도를 이용하여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2001년 말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 이후 다른 불교 신자를 비롯해 반전평화주의, 생태주의 등 다양한 신념에 기초한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5월 현재 16명에 이르고 있다.

이로서 지난 50여년간 특정 종교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치부되어 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그 간의 사회적 선입견을 벗고 적극적인 인권과 평화적 가치 실현으로서 그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새로운 병역거부자들의 등장  
- 반전평화주의 병역거부자들

2001년 말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 이후 또 다른

불교 신자를 비롯해 반전평화주의,

생태주의 등 다양한 신념에 기초한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5월 현재 16명에

이르고 있다. 대학생, 현직 교사,

그리고 현역 군인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위치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이 작지만 커다란

울림을 지니고 퍼져나가고 있다.

이로서 지난 50여 년간

특정 종교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치부되어

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그 간의 사회적

선입견을 벗고 인권과 평화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직접행동'으로써 그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저는 보이는 길 밖에도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을 실천하는 행동이기에,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기에, 또한 진정한 평화를 위한 행동이며,

다양성과 개성과 상상력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기에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더라도 천천히 한걸음씩  
이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2005. 4. 4 병역거부자 조정의민 소견서 중에서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였다.

강철민은 “파병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며,  
군인으로서 최초로  
파병반대 병역거부를  
선언하였다.

**강철민의 병역거부**는  
병역거부행위가 전쟁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임을  
보여준 동시에,  
전쟁과 군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사회에 던져주었다.



708호 이등병의 편지  
— 이등병 강철민, 파병반대 병역거부



이등병 **강철민**은 백일 휴가 마지막 날 “파병계획이 철회되지 않으면 군  
대에 복귀하지 않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NCC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군  
대에 가기 전에도 학생회 활동 등을 한 강철민은 한국군의 파병에 직면하  
여, 파병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때  
마침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며 병역을 거부한 염창근의 소식을 듣고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강철민은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11월 21일부터  
NCC에서 8일간 농성을 하였다.  
농성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전개되었다.  
밤마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작은 문화제가 열리는 등 농성장은 활기찼다.

이라크 침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었다.

이라크인들의 피눈물에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늘어갔고,  
강철민도 그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는 “파병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며,  
군인으로서 최초로 파병반대병역거부 선언을 하였다.

파병반대의 여론이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병역거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찬반 논란이 일어났다.

강철민은 병역거부선언과 함께

2003년 11월 21일부터 NCC 708호에서 평화적으로 농성을 하였고,  
11월 28일 농성을 정리하며 NCC에서 나왔다.

강철민은 청와대까지 평화행진을 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 속에서 자진 출두 하였다.

이후 강철민은 군사법정에서 실형 2년,

향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마산교도소로 이감되었고

2005년 2월 28일 3·1절 특사로 가석방되었다.

강철민의 병역거부는 병역거부행위가 전쟁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임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군인으로서 병역거부를 하면서  
전쟁과 군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사회에 던져주었다.



뜨거운 여론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고  
- 언론보도와 여론의 흐름



보수언론에서 주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체복무제도의 찬성이 63.7 퍼센트나 나타남으로 편견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는 여론의 흐름을 읽게 된다. 또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대안마련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2001년 6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 사회의 뜨거운 여론을 반영하며 찬반의 주장을 균일하게 나타내려는 노력이 보인다. 단, 종교적 대립을 부각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실린 병역거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찬반에 대한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도  
병역거부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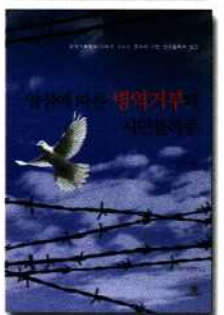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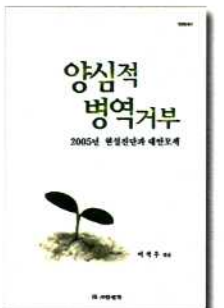
주요언론들의 편견을  
벗기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기사.  
병역거부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편견을 벗게 된 언론들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힘써 노력하였다.

군사 문화에 길게 물들어 있던 사회인만큼 병역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또한 여느 사건보다 민감하게 나타났다. 가열 찼던 민주화 운동 가운데서도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식됐던 군복무, 지난 수십 년간 있어 왔던 종교적 편견이 하루아침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힘겨웠던 것일까. 병역거부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이기적 기피가 아니라는 외침, 특정 종교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외침에 이 사회는 한동안 귀 기울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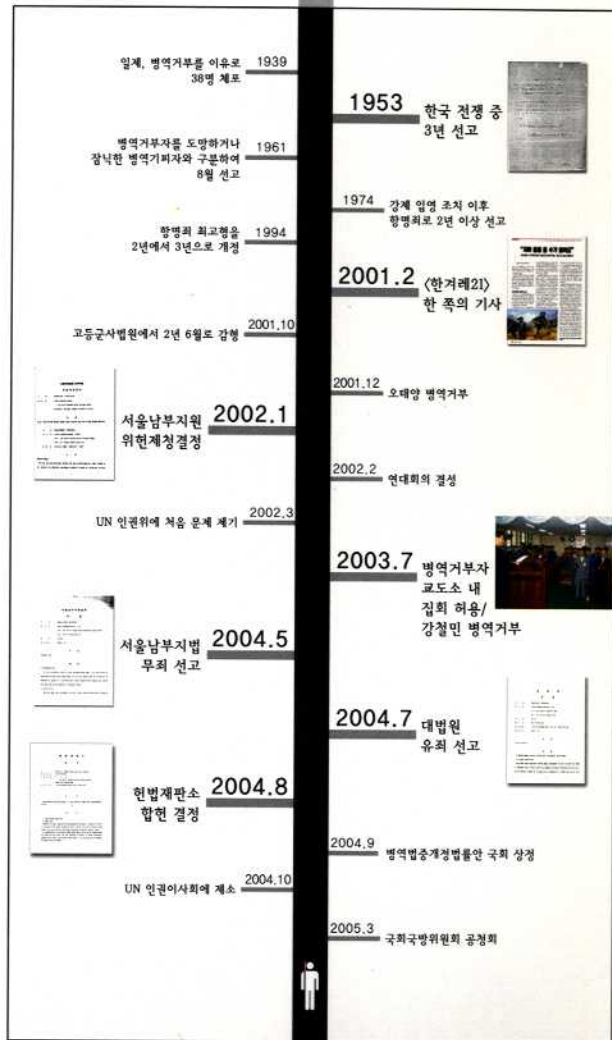
하지만, 진실의 힘은 강력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건전한 언론과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닌 사람들이 목소리를 차츰 높여 가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몇몇 언론인들은 방송과 기사는 물론 개인적인 술회를 통해서까지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으려고 애썼으며 그러한 노력은 잔잔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인식의 변화였다. 굴직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열리곤 했던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정 게시판이 등장할 정도로 달구어진 토론을 통해 악용의 소지가 문제일 뿐 진실 된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논의를 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와 대입 논술 시험문제에도 등장함으로 사회적인 진지한 관심을 반증해주기도 하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제로 한 단행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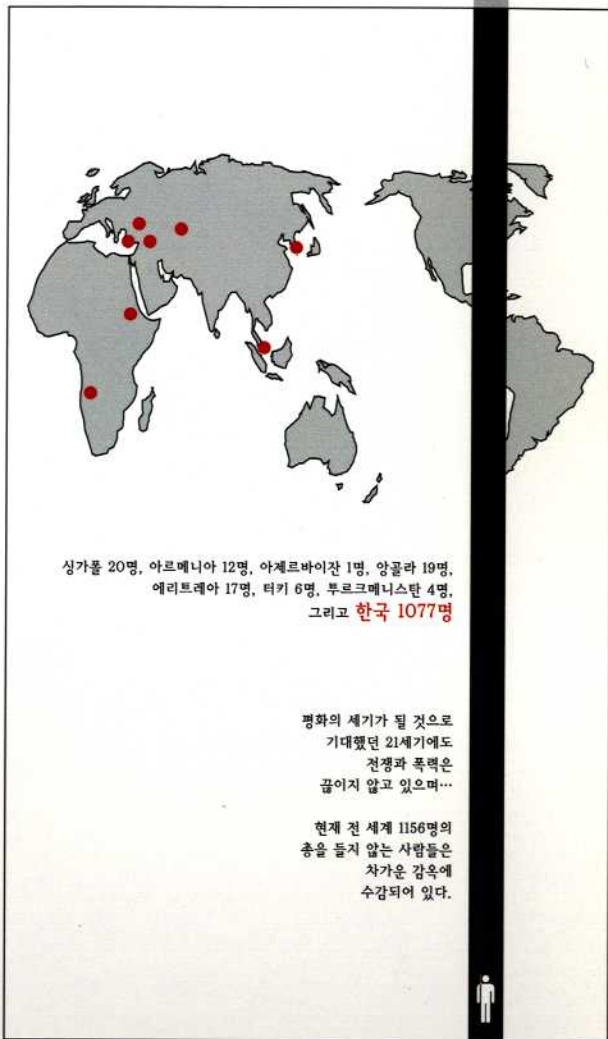


60년, 세월의 무게 - 병역거부 연대기

1939. 6. 일제, 병역거부를 이유로 38명 체포
1953. 7. 한국 전쟁 중 3년 선고
1961. 9. 병역거부자를 도망·잠복한 병역기피자와 구분, 8월 선고
1974. 강제 입영 조치 이후 항명죄로 2년 이상 선고
1994. 7. 항명죄 최고형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 병역거부자에게 여러 차례 집총을 명하여 이를 거부할 때마다 항명을 한 것으로 간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불법적인 처벌에 일부 군판사들이 이의를 표명하자 균형법 자체를 개정하여 최고형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다.
2001. 2. <한겨레21> 한 쪽의 기사. 지난 60여 년 동안 사람들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던 병역거부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올린 것은 이 한 쪽의 기사였다. 당시 수감되어 있던 1640명이라는 수감자 숫자는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였고, 많은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인권 문제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2001. 10. 고등군사법원에서 2년 6월로 감형. 군사 법원에서 무조건 최고형 3년만을 선고하던 관행을 버리고 각 사건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리하게 되는 신호탄이 되었다.
2001. 12. 오태양 병역거부
2002. 1. 서울남부지법 박시환 판사 위헌제청결정. 이 결정 이후 다수의 검사와 판사들은 그 취지에 동의하여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거나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석방시키고 재판을 연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280여건에 달한다.

2002. 2. 연대회의 결성
2002. 3. UN 인권위에 처음 문제 제기
2003. 7. 병역거부자 교도소 내 집회 허용.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내에서도 종교 집회 금지 등 차별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법무부가 받아들여 교도소 내 소수 종교 집회를 허락하였다.
2003. 7. 강철민 병역거부
2004. 5. 서울남부지법 무죄 선고. 사법사상 처음으로 있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양심에 따른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고 양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촉발되었다.
2004. 7. 대법원 유죄 선고. 비록 유죄로 결론 났으나,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의 일부로 인정했다는 면에서 진일보한 판결이었으며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성과도 있었다.
2004. 8.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2004. 9. 병역법중개정법률안 국회 상정. 9월에 임종인 의원이 11월에 노회찬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군사 훈련을 면제하는 대신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배에 달하는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4. 10. UN 인권이사회에 제소
2005. 3. 국회국방위원회 공청회





양심과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하여  
- 세계적인 현황

역사적으로 병역거부가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발전한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전쟁 시기였다. 영국은 홀로 독일과 세계대전을 치르는 1916년에, 미국은 역사상 가장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독일은 냉전구도가 강화되고 동서로 분단되어 있었던 1961년에 각각 대체복무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밖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도 이 시기에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한 레닌 역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시험적으로 운영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병역거부 인정 범위는 모든 종교적 거부자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농업, 산림 관리, 보건 분야 등에서의 민간대체복무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전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기준이 더욱 확대되기 시작한다. 특히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일어난 병역거부운동은 미국의 동남아시아 철수와 1973년 징병제도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던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체제 붕괴 후에 병역거부권을 헌법으로 인정하게 된다.

유엔 차원에서도 1970년부터 병역거부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 시작하여 1987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병역거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에 따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누구나 갖는 보편적 권리이며, 군복무 중인 사람들도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전세계에서 현재까지도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고 있는 나라들과 수감된 병역거부자 수는 다음과 같다.

싱가폴 20명, 아르메니아 12명, 아제르바이잔 1명, 앙골라 19명, 에리트레아 17명, 터키 6명, 투르크메니스탄 4명, 그리고 **한국 1077명**(2005년 3월말 현재).

이처럼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은 8개국에 흩어져 있다. 안타깝게도 그 수감자의 93%는 한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은 OECD 31개국 중 유일하게 병역거부자들을 수감하고 있는 나라이다.